

알기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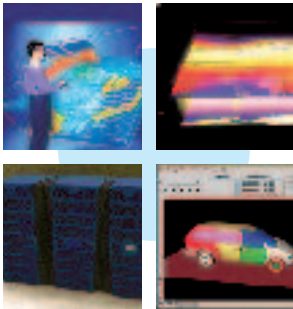
### e-Science

천문대에 가지 않고서도 천체 망원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Science 기반 연구 환경에서는 가능하다.

e-Science 기반이란 연구개발자들이 초고속 연구망과 인터넷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 저장장치, 슈퍼컴퓨터나 핵융합기 같은 첨단 실험 장비 그리고 인력 자원까지도 공유하게 하는 과학기술 활동이다.

최근 많은 첨단 과학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처리, 상호 교환, 저장, 영상화 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분야의 문제점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분야에서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핵심기술의 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 전체가 참여하는 연구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원격 공동연구 기반'이 필요하고, 그것이 e-Science 기반 연구 환경인 것이다.

또 첨단화, 거대화, 고속화 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고려할 때, e-Science 기반 연구 환경은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는 추세다.



### 위키(Wiki)

오랫동안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불려온 브리태니커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막강한 경쟁자 '위키'가 등장했다.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란 뜻의 'wiki wiki'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1994년 미국의 워드 커닝엄에 의해 개발되었다.

위키와 브리태니커는 양쪽 모두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브리태니커가 기존의 백과사전처럼 사이트에서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반해, '열린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는 네티즌들이 만드는 백과사전이다.

위키 사이트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손쉽게 정보를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 중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직접 편집해 수정할 수도 있다. 관련 지식을 하위 지식으로 따로 올리거나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을 통해 계속해서 지식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살아있고 생생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위키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위키는 사용자의 조회수나 정보 및 지식의 수록 면수 측면에서 이미 브리태니커를 앞지르고 있다.

네티즌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식 데이터베이스 축적인 위키 서비스 (<http://en.wikipedia.org>)는 앞으로 지식검색과 커뮤니티를 결합시킨 차세대 지식검색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블로그(blog)

최근 인터넷에서 지식검색이라는 말과 더불어 블로그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블로그란 web+log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기록하는 개인 일지(diary)다. 즉 인터넷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견해 등을 기록(log)의 형태로 남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두는 일종의 미니 홈페이지를 블로그라 한다.

지금까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많았다. 웹에디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법, HTML 문법, FTP, 텔넷(telnet) 등의 지식이 필요했다. 반면 블로그는 블로그 사이트에 가입해 계정을 배정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웹에디터, HTML, FTP, 텔넷 등을 몰라도 얼마든지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최초의 블로그는 글을 올리고 읽는 기능만을 가졌으나 점차 모임 지원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 등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블로그에는 대체적으로 저자의 개성이나 웹 사이트의 목적성 등이 강하게 표현되며, 보통 간단한 철학적 생각이나 인터넷상에서의 논평(comment),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되고, 거기에 저자가 좋아하는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 등이 덧붙이기도 한다.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잡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며, 매일 매일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고 스타일에서도 크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 와이브로(WiBro)

우리들은 가정에서 흔히 ADSL이나 VDSL 등과 같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런데 달리는 차나 지하철 안에서도 노트북이나 PDA 등으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 나온 것이 WiBro(Wireless Broadband) 서비스라는 것으로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즉 휴대 인터넷이다.

와이브로는 2.3GHz 대역을 활용하여 ADSL 수준의 품질과 비용으로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재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자유자재로 접속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무선 통합 환경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휴대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기술들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기술 표준(standard)을 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와이브로의 시제품 개발로 그동안 퀄컴 등 해외업체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핵심 칩(chip) 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장비의 수출이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